

LG, 5G 특화망 기반 미래 먹거리 '스마트 팩토리' 본격화

LG전자 주총서 모든 안건 의결
서승우 서울대교수 사외이사 선임
이사보수한도 90억 그대로 승인
기간통신업·화장품판매업 추가

LG전자가 미래 기업으로 혁신 작업을 본격화한다.

LG전자는 27일 서울 LG트윈타워에서 제21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모든 안건을 원안대로 결의했다.

LG전자는 이번 주총을 통해 서승우 서울대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이사 보수한도를 지난해와 같은 90억원으로 승인했다. 1주당 배당금은 보통주 700원에 우선주 750원으로 의결했다.

LG전자는 예고했던 바와 같이 사업 목적에 기간통신사업과 화장품판매업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신사업으로 진출한다는 방침이다.

화장품판매업은 프라엘을 비롯한 뷰티·의료기기와 결합해 구매 편의성과 제품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에도 '의료기기의 제작 및 판매업'을 정관에 추가한 바, 이를 확대해 새로운 사업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LG전자는 방문간호 기업인 바



LG전자가 창원 LG스마트파크에 지능형 자율공장을 적용했다.

야다홈헬스케어와 LG메디피인을 활용한 사업을 개발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맺기도 했다. 미국 시장에서 프라엘 메디케어 등 개인용 의료기기 판로 확대를 위한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계열사인 LG생활건강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기간통신사업은 LG전자가 미래 사업, 스마트 팩토리를 본격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기간통신사업은 5G 기술을 활용해 특정 기업이나 장소에 무선 사설망 '프라이빗 5G'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스마트팩토리는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평가된다. 글로벌 산업계

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생산 시설을 디지털로 전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업용 시설 업체뿐 아니라 엔비디이를 비롯한 반도체와 네이비 등 IT 업체까지도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다. 시장 규모는 수백조원 수준, 연간 성장률도 10%에 달할 전망이다.

프라이빗 5G는 스마트 팩토리를 위한 핵심 통신 기술로 꼽힌다. 특정 지역에 무선 통신망을 구축하는 특화 서비스로, 공장에 모든 사물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IoT 기술을 적용해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낼 수 있다.

LG전자는 이미 창원 스마트파크와 미국 테네시 공장에서 스마트 팩토리



구축 역량을 확인한 바 있다. 자동화는 물론 친환경성까지 더해 창원 공장은 '등대 공장'으로도 선정됐다. 여기에도 LG유플러스의 '5G 전용망 기반 물류 로봇(AGV)'을 도입하며 프라이빗 5G 기술을 실현했다.

스마트팩토리에 필수적인 로봇 기술도 일찌감치 육성해왔다. SG로보틱스와 노바로보틱스 등 로봇 기업에 지분 투자는 물론, 2018년 산업용 로봇 기업 인로보스타를 인수하며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스마트팩토리 운영을 맡을 인공지능(AI) 역시 LG가 자랑하는 분야 중 하나다. LG는 초거대 AI 엑스원을 구축

하고 창의적인 분야에서까지 다양한 시도를 성공시켰다. LG전자는 이미 단순 업무에 AI를 대거 도입하기도 했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LG전자가 1분기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영업이익 1조원 안팎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DS부문 대규모 적자로 흑자 달성조차 불투명해지는 가운데, 전장 사업 등 미래 먹거리가 본격적으로 수익을 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OLED TV를 비롯한 영상 가전과 함께 생활 가전 분야에서도 '신가전'을 잇따라 성공시키면서 성장 기대감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현대모비스, PBV기술 철학·비전 공개

2023 서울모빌리티쇼 참가

11개 전시품목 3개 구역에 배치
엠비전·헬스케어 신기술 등 선보

현대모비스가 미래형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 기술 철학과 비전을 공개한다. 핵심 콘텐츠는 '엠비전 TO·HI'이다.

현대모비스는 이달 31일부터 4월 9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3 서울모빌리티쇼'에 참가해 미래 모빌리티 혁신 기술을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초 CES에서 호평 받은 엠비전 시리즈를 비롯해 현대모비스의 미래 모빌리티 지향점을 국내 관람객에게 차별화된 콘텐츠로 선보인다.

2023 서울모빌리티쇼는 현대모비스가 엔데믹 이후 국내 소비자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다. 'Hi! For better Tomo

orrow'(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를 주제로, 역대 가장 넓은 면적의 전시공간(720㎡, 약 218평)에서 현대모비스가 꿈꾸는 미래 모빌리티 세계를 소개한다.

현대모비스는 전시품 총 11종을 3개의 구역에 배치해 관람객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미래 모빌리티존과 기술 홍보존, 그리고 브랜드존에서 현대모비스의 미래 선행 기술을 만나볼 수 있다.

먼저 미래 모빌리티존에는 PBV 엠비전 TO와 HI가 국내에 처음으로 선보인다. 엠비전 TO는 전동화 기반 자율주행 콘셉트카로, e-코너 시스템과 자율주행 센서, 커뮤니케이션 라이팅 등의 신기술들이 융합된 차량이다. 관람객들은 좌우 바퀴가 90도로 회전하는 크랩 주행과, 제자리 360도 회전 등을 하는 PBV를 탑승하며 색다른 이동 경험을 체험할 수 있다.

협력할 수 있다.

레이저와 휴식 목적에 맞게 개발된 엠비전 HI도 전시된다. 차량 내부에는 자유롭게 위치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의자와, 시선 인식 기술이 탑재된 대형 디스플레이를 설치했다. 시선을 돌리고 손을 움직이는 동작만으로 영화 감상이나 인터넷 쇼핑 등 원하는 콘텐츠를 편리하게 체험할 수 있다.

기술 홍보존인 M. Tech 갤러리에는 현대모비스가 개발하고 있는 미래 모빌리티 핵심 기술들이 대거 전시된다. CES 혁신상을 수상한 세계 최초 뇌파 기반 헬스케어 신기술 '엠브레인(M. Brain)'과 페이스어워드 우수 혁신 기술로 선정된 '차세대 후륜조향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관람객들의 몰입도 향상을 위해 기술 설명을 도와줄 도슨트(해설가)도 배치한다. /양성운 기자 ysw@



LG전자 'ESG 대학생 아카데미 9기' 발대식

LG전자는 최근 서울 LG트윈타워에서 'ESG 대학생 아카데미 9기' 발대식을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에는 대학생 32명이 참석하며 '모두의 더 나은 삶'을 목표로 5개월 동안 활동할 예정이다. LG전자

SK케미칼, 용기 이어 친환경 섬유시장 진출

화학적 재활용 소재 공급 본격화

SK케미칼이 친환경 용기 시장에 이어 섬유 및 의류 시장에도 '화학적 재활용' (Chemical Recycle) 소재 공급을 본격화한다.

SK케미칼은 플라스틱 순환생태계 플랫폼 '이음'을 통해 친환경 사회적 기업인 '아트임팩트', '프로젝트 1907' 등과 공동으로 개발한 재활용 소재 섬유 원단이 출시돼 판매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원단들은 '폴리에스터 100%'와 '스판 혼방' 등으로 SK케미칼이 화학적 재활용 페트(CR-PET)를 원료로 공급해 아트임팩트와 프로젝트1907 등이 상업화한 것이다. 화학적 재활용이란 폐플라스틱을 분자단위로 분해해 다시 원료로 만드는 것으로 석유를 원료로 하는 버진(Virgin)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다.

아트임팩트는 친환경 패션 소재 및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소셜벤처기업이고 프로젝트1907은 친환경 라이프스타일 패션 브랜드이다. 두 회사는 이번에 개발한 새로운 원단을 자체 패션 브랜드 제품에 활용하고, 친환경 원단이 필요한 의류회사의 다양한 요구에 맞춤형 마케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SK케미칼은 '이음'을 통해 이번 협업을 주도했고, 앞으로 화학적 재활용 섬유의 공급망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B2B2C(기업간·소비자간거래)' 형태의 판매망도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이음 사이트에서는 방문 고객들에게 재활용 소재 원단으로 제작된 스카프와 같은 패션 제품이 담긴 '섬유소재경험 키트'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시장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이를 통해 SK케미칼은 의류·생활용품·캠핑용품 등을 다루는 다양한 섬유패션 업체들과 협력구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허정원 기자 zelkova@

현대차, 일자눈썹 단 '쏘나타 디 엡지' 디자인 첫 공개

현대자동차의 대표 중형 세단 쏘나타가 세련되고 스포티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현대차가 27일 8세대 쏘나타의 풀체인지급 부분변경 모델인 '쏘나타 디 엡지'의 디자인을 최초로 공개했다.

쏘나타 디 엡지의 차명은 풀체인지급으로 바뀐 쏘나타의 날렵하고 직선적인 디자인과 개성있는 삶을 살아가는 고객들의 스타일을 강조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쏘나타 디 엡지는 2019년 3월 출시 이



현대차 '쏘나타 디 엡지'

후 4년만에 선보이는 풀체인지급 부분변경 모델이다. 현대차의 디자인 정체성 '센슈어스 스포티니스(감성을 더한

스포츠함)'를 바탕으로 한층 넓고 날렵한 인상을 더해 스포츠 세단 느낌의 역동성을 강조했다.

전면부는 헤드램프와 라디에이터 그릴, 에어 인테이크가 하나로 합쳐진 통합형 디자인으로 역동적이고 와이드한 이미지를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ouTube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